

국별 리포트

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이집트(Arab Republic of Egypt)

I. 일반개황

면적	1,002천 km ²	G D P	1,890억 달러 (2009년)
인구	83.1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2,275 달러 (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Egyptian Pound (E£)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5.5 (2009년)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인구 83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임.
- 풍부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 정책 등으로 역내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도시로는 수도 카이로(인구 18백만)를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의 관광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4백만), 수에즈운하 운영 중심지인 수에즈(5십만) 등이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제성장률	4.5	6.8	7.1	7.2	4.7
재정수지/GDP	-9.6	-8.2	-7.5	-7.1	-6.6
소비자물가상승률	4.9	7.6	9.3	18.3	11.8

자료: IMF 및 EIU

□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소폭 하락

- 2006~08년* 이집트 경제는 관광산업 호조, 고유가에 따른 수에즈운하 운영 수입 증가와 투자환경 개선 및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천연가스 수출과 내수 확대에 힘입어 7%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을 시현하였음.

* 이집트의 회계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임.

-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개발 분야 성장*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은 4.7%를 기록하여 성장률 둔화폭은 아프리카 주변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천연가스 부문은 전년 대비 6.9% 성장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 이집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수요 증가와 건설, 통신 분야의 성장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5% 증반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만성적 재정적자

- 이집트의 재정수지는 재정 확대 정책, 비대한 공공조직,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높은 경제 성장에 힘입은 세수 확대, 각종 보조금의 점진적인 인하 등의 개선 요인이 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적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5년 및 2006년 각각 9.6%와 8.2%에 달하였으나, 공기업 민영화, 세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이며 2009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6%까지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대내 공공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경기부양 정책 지속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는 9%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

- 2005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및 에너지 가격 불안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의 영향으로 18.3%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 소비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8%로 둔화되었으며, 2010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07년 기준 관광, 수에즈운하 운영, 기타 공공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이 19%,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개발 부문이 8.6%, 면화 중심의 농업 부문이 13.8%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아 이집트 경제 전반이 중동 정정불안, 테러 발생, 세계 운송경기 등 대내외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최대 유전지역인 수에즈 유전이 고갈되면서 이집트의 원유생산량은 1998년 857천 배럴/일에서 2008년 722천 배럴/일로 감소 추세이나, 이집트는 나일강 삼각주 및 서부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발굴에 성공하여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 이집트는 2008년 기준 전세계 매장량의 1.2%에 해당하는 76조 6천억 입방 피트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여 세계 15위이며, 이집트 정부는 천연가스 매장량을 1,203조 입방피트로 추정하고 있는 등 천연가스는 이집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였음.
- 2005년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한 이집트는 가스수출국포럼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회원국으로 2008년 기준 86억 입방미터의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세계 23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었음.
 - * GECF는 천연가스 생산 국가들의 모임으로 OPEC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며, 200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8년 정식 기구가 되었음. GECF 가입국은 러시아, 이란 등 13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집트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8년 기준 627억 입방미터로 세계 15위의 생산국임.

다. 정책성과

□ 나지프 총리의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

- 전임 오베이드 (Atef Obeid) 총리가 경제 개혁 부진으로 퇴진하고 2004년 7월에 출범한 나지프 (Ahmed Nazif) 내각은 공기업 민영화, 수입관세 인하, 통관절차의 간소화, 금융 산업 개편, 무역 자유화 조치 등의 광범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음.
- 나지프 내각은 공기업 민영화를 최대 경제 현안으로 간주하여 텔레콤 이집트, 이집트알루미늄, 알렉산드리아은행 등 우량 기업들을 매각대상에 포함해 활발하게 민영화를 추진하였음.
-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 무상 제공, 관세 및 법인세 인하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 20억 달러에서 2008년 178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12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발표

- 이집트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약 54억 달러 (EGP 30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음. 이는 이집트 GDP의 3% 수준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수출 진흥책 등에 사용될 예정임.
- 2008년 11월 약 27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었으며, 2009년 2월 약 27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이 발표되었음.
-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이집트 재무부는 자유무역지대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산업용 천연가스 및 전기료 동결, 카이로 인근 신규 산업 공단 조성 등의 단기 부양책도 발표하였음.

□ 자본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 이집트 정부는 2009년 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단행하였음.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총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집트의 자동차, 식품 산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기계류, 열교환기, 동축케이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 상 수 지	2,103	2,635	412	-1,415	-3,092
경 상 수 지 / GDP	2.3	2.4	0.3	-0.9	-1.6
상 품 수 지	-7,745	-8,438	-14,899	-19,759	-22,825
수 출	16,073	20,546	24,455	29,849	24,091
수 입	23,818	28,984	39,354	49,608	46,916
외 환 보 유 액	20,508	24,341	30,054	32,108	34,558
총 외 채 잔 액	30,096	29,339	30,444	29,420	28,060
총 외 채 잔 액 / GDP	32.3	27.2	23.5	18.5	14.9
D S R	7.3	5.6	5.1	7.7	6.1

자료: IMF 및 EIU

□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 이집트는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음. 그러나 2005~07년에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외화 획득원인 관광수입, 해외 근로자 송금* 및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음.

* 해외근로자 송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수지는 2006년 58억 달러에서 9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07년 수에즈운하 운영수입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1억 달러에 달함.

○ 2008년에는 상품수입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적자규모는 GDP 대비 0.9%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로 인하여 서비스수지 흑자규모가 감소*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6%로 확대되었음.

* 연도별 서비스수지 추이 : 87억 달러 (2006년), 112억 달러 (2007년), 143억 달러 (2008년), 120억 달러 (2009년)

○ 2010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수입 및 수에즈운하 운영 수익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 이하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외환 보유액 증가 추세

○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 산업의 수익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수에즈운하 운영 수익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5년 205억 달러에서 2009년 346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음.

[외채상환능력]

□ 외채 상황 양호

○ 이집트의 외채규모는 최근 수년간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DP의 지속적 증가로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06년 32.3%에서 2009년 14.9%로 감소하였음.

○ 2009년 DSR은 6.1%로 최근 수년간 5~7%를 유지하고 있어 이집트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무바라크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

- 1981년 사다트 (Muhammad Anwar el-Sadat)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무바라크(Hosni Mubarak)가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20여 년간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국제사회의 정치 개혁 요구에 따라 실시된 최초 직선제에서도 승리함으로써 2010년까지 집권 기반을 마련하였음.
- 무바라크 대통령은 집권 국민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의 과반수 의석 (70%) 확보, 헌법 개정을 통한 이슬람교 과격 세력의 효과적 통제 등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민주당 의석이 70여석 감소한 반면 최대 야권 세력인 무슬림형제단 (Muslim Brotherhood) 의석수는 종전 17석에서 88석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체 의석수의 20% 가량을 차지하여 정국 변수로 등장하였음. 그러나 2008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92%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함에 따라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무바라크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명목으로 2007년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슬림형제단의 정치 진출을 합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차남 가멜 (Gamal Mubarak)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 2007년 헌법 개정안은 211개의 헌법 조항 중 정당설립, 대통령 후보, 유고시 통치위임, 반테러 등 34개 조항에 대한 개헌안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 설립을 금지시켰으며, 대통령 유고시 통치권을 부통령, 또는 총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무슬림형제단 소속 의원들은 현재 무소속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전체 의석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무바라크 대통령의 후계 문제 대두

- 무바라크 대통령은 최근 아흐메드 나지프 총리에게 국가통치권을 임시로 이양한 뒤 독일에서 담낭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며, 2011년 대선에서는 고령인 무바라크(80세) 대신 차남인 가멜이 여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최근 귀국한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가 강력한 야권 후보로 떠오르며 유력 야권 인사들과 함께 정치개혁 조직인 '변화를 위한 국민연대'를 창설하는 등 세력을 확산하고 있음.

□ 민주화 및 정치개혁 목소리 점증

- 무바라크 정권의 강력한 통제로 이집트의 야당 및 재야 세력은 크지 않으나,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서민층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음.

□ 서방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

- 이집트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미국 및 서방세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방 강대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매년 대규모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최대 교역 대상국임. 이집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및 이라크 문제에서 서방측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 중동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집트의 정치안정 필요성을 미국에 각인시키며 이집트 민주화 진전 압력을 무마시키고 있음.

□ 중동 평화구축 중재자 역할 수행

- 이집트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이후 1979년에 아랍권내에서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음. 인근 아랍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등 중동 평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대 아프리카 외교관계 강화

- 2005년 이집트, 이디오피아 정상회담 및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정상회의를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이집트 상품의 대 아프리카 수출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전반적인 사회 안정 유지

-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의 활동, 이라크전을 전후한 반미 시위, 무바라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비난하는 집회 등이 있었으나, 대규모 시위나 전면적인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 오베이드 총리 재임 5년 동안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증가, 고학력 청년 실업 증가 등 경제난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였으나, 2004년 중반 내각 개편을 통해 임명된 나지프 총리가 세제 개혁, 금융 개혁, 민영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난 타개와 실업문제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대표적인 식량 수입국인 이집트는 최근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었으나,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식량 문제가 대규모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 이집트 정부는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하여 2008년 4월 쌀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2009년 10월 쌀 수출 금지 조치를 2010년 10월까지 12개월 연장하였음.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간헐적 테러 발생

- 1997년 외국인 관광객 등 62명이 사망한 룩소르 (Luxor) 테러 사건 이후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테러가 최근 간헐적으로 재발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경험

- 이집트는 파리클럽과 1987년, 1991년 각각 71억 달러, 212억 달러 규모 리스케줄링에 합의함에 따라 외채상환부담이 경감되었음.
- 파리클럽과의 리스케줄링 합의에 따라 이집트의 외채는 1989년 500억 달러에서 1991년 3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외채도입에 신중한 자세 견지

- 리스케줄링 이후 이집트 정부는 외채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외채 수준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이집트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1,167	1,548	1,528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614	1,330	463	천연가스, 석유제품
합 계	1,781	2,878	1,991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95. 4. 13 (북한과는 1963. 8. 25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1968), 무역진흥협정(1984), 항공협정(1988), 이중과세 방지협정(1994), 투자보장협정(1996), 보건협력협정(2000), 차관 공여협정(2001), 원자력협정(2002)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 규모는 2003년 6억 달러에서 2008년 29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음. 수입 감소로 교역 규모가 20억 달러로 축소된 2009년에도 대 이집트 수출은 15억 달러를 기록함.

- 2009년 수출은 자동차*,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약 15억 달러, 수입은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463백만 달러를 기록함.

* 2009년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자동차 수출은 5.2억 달러 수준으로 대 이집트 수출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집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0~40%로 추정됨.

- 2007년 8월 GS건설이 미쓰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연산 5백만 톤 규모의 ERC 정유 사업 EPC 계약(21억 달러)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2월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정부와 4천억 원 규모의 아인 소크나(Ain Sokhna) 화력발전소(발전용량 1300MW)의 보일러 기자재 공급 및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아프리카 국가와는 최초로 이집트와 방산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집트 방산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집트 정부가 2025년까지 원전 4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노력이 예상되어 향후 우리나라 대 이집트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해외직접투자 (2009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24건 171백만 달러

V. 종합의견

- 이집트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호조와 에너지 부문 성장,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6~2008년 7%대의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4.7%로 하락하였음.

2010년에는 이집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수요 증가 및 건설, 통신 등 비석유 부분의 성장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5%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상수지는 당분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1981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무바라크 대통령의 굳건한 기반 아래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민층의 열악한 경제여건 및 무바라크 정권의 반민주적 헌법 개정 등으로 대내외적인 정치개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수출은 15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